

[아시아의 진보 사상가들](2) 인도 최하층민 사로잡은 차루 마줌다르

경향신문 | 정호영 | 2012. 09. 09. 21:48

농민 무장봉기 이끈 마오주의자

1967년은 인도 공산주의 역사의 분기점이다. 그해에 인도 공산당-마르크시스트(CPI-M) 소속인 남부디리파드는 케랄라에서 선거를 통해 평화적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인도 공산당이 제도 안에 정착하는 길을 열었다. 같은 해 서벵갈의 낙살바리 지역에서는 2만명의 농민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농민위원회를 구성했다. 농민위원회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해 땅 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현재 인도 전체의 40%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낙살라이트는 이 봉기에서 시작되었다. 이 봉기의 지도자가 차루 마줌다르(1918~1972·사진)였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지주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살인적인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던 다즐링 차플랜테이션의 농업노동자를 비롯한 최하층의 농민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위해 싸웠다. 테바가와 텔렝가나 봉기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은 그의 무장투쟁 노선에 영향을 주었다. 거둬지는 지명수배와 투옥에도 굴하지 않았던 마줌다르는 당 지도부가 합법노선으로 전향하자 이를 수정주의라 비판하고 마오쩌둥의 폭력혁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며 낙살바리 봉기에 참가했다. 1970년 마줌다르는 인도공산당-마르크스레닌주의(CPI-ML)를 결성하고 CPI-M과 완전히 갈라섰다. 하지만 마줌다르는 1972년 체포되어 삼엄한 경계 속에서 처형되었다. 봉기는 진압되었고 CPI-ML은 곧 수십개의 분파로 갈라졌다.

마줌다르의 사상은 '8개의 역사적 문서들'에 담겨있다. 서벵갈 식량위기가 있던 1965년에 나온 5개의 문서는 인도 사회구성체 분석과 그에 따른 혁명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인도를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식량위기 해결을 위해 미국의 원조를 받는 것은 미제국주의에 예속되는 길이며 오직 농민에 의한 농업 혁명을 통해서만 식량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호루쇼프의 수정주의 노선이 지배하는 소련 또한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소련의 지원도 거부했는데 낙살라이트들은 당시 중·소 논쟁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편에 섰다. 그들의 슬로건은 '마오쩌둥은 우리의 의장이었다'.

전술적으로는 1946년과 1951년 사이에 4000여 부락이 참여했던 텔렝가나 무장봉기를 계승해서 경찰로부터 무기를 빼앗아 좀 더 많은 지역을 해방시키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상명하복 위주의 효율적인 지하조직이 건설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따라 카슈미르 등 분리를 원하는 지역들은 모두 인도로부터 독립국가로 떨어져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현재도 낙살라이트들이 분열주의자로 비판받는 이유이다.

선거를 한 해 앞두고 있던 1966년에 나온 3개의 문서는 제도정치를 통해 성장하고 있던 수정주의적인 CPI-M과의 비타협적 투쟁을 통한 혁명정당 건설을 강조했다. 제도권 공산당이 이끄는 노동운동의 파업 또한 관습적인 요구일 뿐이지 혁명과는 무관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노선은 현재의 낙살라이트들에게도 거의 계승된다. 마줌다르의 글은 유려한 이론적 전개이나, 복잡한 개념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다. 반대로 선동적인 문구로 가득 차 있다.

현재 CPI-ML은 합법정당으로 변신했지만 수많은 낙살라이트 집단들이 여전히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2004년 안드라프라데시 주의 인민전쟁그룹과 비하르주의 마오공산주의센터가 통합되어 CPI-Maoist가 결성되면서 낙살라이트들은 이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려 하고 있다. 이들이 인도 곳곳에 '해방구'를 구축하게 된 것은 토지 없는 농민들과 소수부족들의 자연발생적인 봉기와 각 지역의 낙살라이트들이 결합했기 때문이다. 농업자본가가 된 인도의 지주들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시기에만 농민들을 한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아예 고용하지 않는다. 농업노동자의 다수가 불가촉천민이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은 부족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있다. 여성은 이들 중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낙살라이트의 주축을 이루는 집단은 서발턴 이론에서 말하는 억눌린 자들인 불가촉천민, 부족민, 여성, 농업노동자들이다. 민족이나 계급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최하층의 다양한 집단들의 자발적 저항을 재조명하려 했던 서발턴 연구는 낙살라이트 운동의 좌절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서발턴이론 연구가 낙살라리즘에 대해서 최소한의 분석은커녕 언급조차 않는 것은 서발턴 연구가 현실의 변혁과는 무관한 지식인들만의 '담론'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지식인들에게 차루 마줌다르보다 구하, 스피박, 호미 바바 등의 이름이 더 익숙한 것도 한국 지식인의 서구 추종의 결과다.

인도는 이제 신흥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3세 미만의 어린이 절반이 영양실조일 정도로 하층 민중들의 삶은 아프리카보다 더 참혹한 상태에 있다. 이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낙살라이트 운동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 정호영 | 당인리대안정책발전소 연구위원·인도 자다푸르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